



뜨거운 열정! 숫아나라.

이주민 건강안전망 위한 '보듬서비스' 시작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원장 김민기)은 지난 7월 17일(수)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한국이주민건강협회와 이주민 의료지원에 관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의료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 노동자, 다문화 가정의 결혼 이민자, 국적이 없는 난민 등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민에 대한 건강안전망 확보를 위해 종합적인 의료지원 형태인 '보듬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이주민의 진료편의를 위해 이주민 종합서비스 공간을 원내 1층 로비에 신설하고 이주민에 대한 통역서비스, 간병인 지원서비스, 의료비 지원서비스가 One-Stop으로 이뤄질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운영하기로 했다. 통역서비스의 경우 중국어, 몽골어, 영어, 타갈로그어(필

리핀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등 총 6개국 언어를 제공한다. 또한 보호자 없이 병원을 내원하는 홀몸 환자와 어르신 환자들이 병원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는 '동행서비스'도 함께 운영한다.

김민기 의료원장은 "점차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해외 인력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민간병원이 다루기 힘든 의료사각지대를 찾아 공공의료의 신성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라며 "서울의료원과 한국이주민건강협회는 앞으로 대내·외 의료지원 사업에 뜻을 같이하고 협력하여 이주민을 포함한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안전망 구축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환자안심병원' 이어 복지부 '보호자 없는 병원'도 순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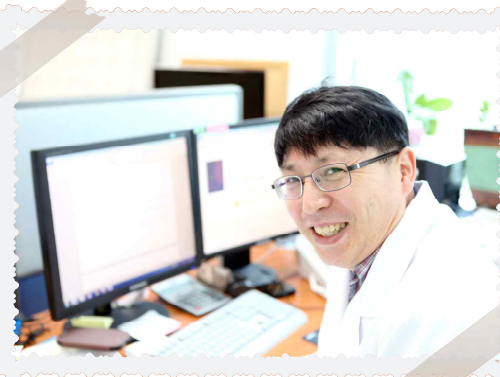
서울의료원은 올 초 서울시 '환자안심병원' 운영에 이어 지난 7월 15일(월)부터는 보건복지부의 '보호자 없는 병원'을 추가 오픈하여 시민의 간병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도병원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23일(수)에는 김중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서울의료원을 방문하여 앞서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환자안심병원과 복지부 보호자 없는 병원의 사업현황과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실제 운영 중인 병동을 둘러보며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서울의료원에서 운영 중인 보호자 없는 병원은 기존 서울시와 함께 시행하고 있는 환자안심병원 180병상을 포함하여 총 280병상으로 국내 최고 수준이며 전체 다인병상(466) 중 60%가 넘는 병상이 시민 모두에게 차별 없이 제공되고 있다.

보호자 없는 병원에선 병원의 책임 하에 간호사가 입원 병상의 전문 간호서비스를 24시간 전담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와 함께 간병서비스의 보조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사회복지사도 투입돼 환자들에 대한 심리·경제적 상담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두거나 보호자가 직접 보호하지 않고도 환자가 입원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서울의료원 김민기 의료원장은 "사적 간병인 고용으로 환자가 가족이 갖는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가족 간병으로 인하여 보호자가 병을 얻는 안타까운 상황도 있다"며 "환자안심병원과 보호자 없는 병원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경제적·신체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공공병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규직원 소개]

새로운 서울의료원 가족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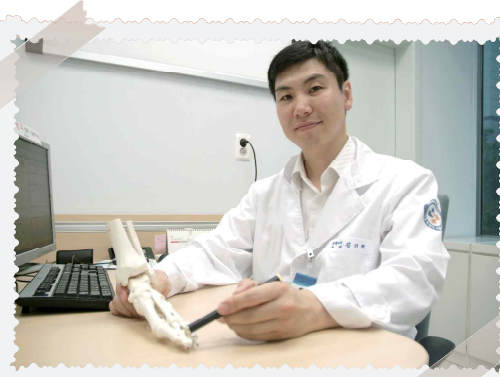


의학연구소 환경건강연구실 김규상 실장

안녕하세요, 5월부터 서울의료원에서 함께 일하게 된 의학연구소 환경건강연구실장 김규상입니다. 지난 몇달 동안 의료원에서 직업환경의학과의 진료과목 주가와 승진 및 개설, 신고, 그리고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신청과 실사를 거쳐 지정기관 승인을 받아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서울시민의 건강을 위한 한 축을 담당하게 되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의료인을 포함하여 많은 분이 생소하게 느낄 직업환경의학과는 이전의 예방의학의 산업보건, 전공영역에서 산업의학으로 임상의학 분과로 독립하여 현재는 직업환경의학과로 직업과 환경상의 유해/위험에 노출되는 근로자 및 일반인구집단의 직업성/환경성 질환의 진단, 질병자의 업무관련성, 업무적합성 평가와 장애보상 평가 및 질병의 예방을 위한 제반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는 20년 동안 작업 현장에서 직업성 천식, 직업성 난청, 직업성 근골격계질환, 직업성 담 등의 다양한 직업병의 역학조사, 그리고 특히 「소음과 청각」 분야에서 다양한 소음 환경과 그로 인한 청력 영향과 이명, 청각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일반 근로자 이외에 일반 인구집단(소아 청소년/노인) 및 특수 종사자의 청력 영향, 소음성 난청의 청능재활 및 청력보호를 위한 청력보존프로그램 등을 연구하였습니다. 소음은 여러 직업환경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여 소음성 난청의 원인으로 뿐만 아니라 재해의 발생이나 작업능률의 저하 등 직접적인 각종 피해를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소음으로 인한 청각장애 이외에도 심혈관계 질환과 고혈압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높은 소음 수준은 급격한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수해 행동능력장애, 수면장애, 대화장애 등 건강과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며, 또 이와 같은 소음으로 인한 청력장애로 2차적인 신체적, 정서적, 행동학적, 사회적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의료원에서 새로운 분야인 직업환경의학과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며, 특히 소음성 난청에 대한 다양한 의료 서비스 제공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형외과 김기천 과장

안녕하세요, 올해 6월 말부터 서울의료원 새 식구가 된 정형외과 김기천입니다. 따뜻하고 사명감을 가지신 서울의료원 식구들과 같이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사지 근골격계를 연구하는 진료를 하는 주부 족관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지만 최근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스포츠 활동이 많아지면서 발과 발목 질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 환자의 증가로 인한 '당뇨발' 환자도 증가 추세에 있으며, 다양한 주부 족관절 기형 및 외상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의학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아직 발과 발목에 대해 미지의 영역이 많은 뿐만 아니라 제가 가진 지식과 기술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픈 이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는 진료와 연구를 한다면 내일은 조금 더 나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우리 몸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지만 가장 많은 무게를 받고 일생 동안 움직이는 발처럼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아픈 이들의 몸과 마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듬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과중환자실 박다원 간호사

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 3월 18일 서울의료원에 입사하면서 사회 첫발을 내딛은 새내기 간호사 박다원입니다. 어려서부터 간호사로직업을 천직이라 생각하며 공부했지만, 병원 입사일이 가까워질수록 양 어깨에 공 두 마리를 얹혀 놓은 듯, 몸과 마음 모두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때도 다행인 것은 간호대학 때의 두 번째 실습지였던, 제가 입사하고 싶었던 서울의료원에 입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간호대 학생 시절, 여러 병원에서 실습을 했지만 가족 같은 분위기와 친절한 선생님들을 잇을 수가 없었고, 이곳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 곳만 바라보면 되지만 다행히 좋은 결과를 보게 되어 서울의료원의 일원이 되었고 또 감사하게도 원하던 부서로까지 발령이 나서 현재 내과중환자실에서 배우고 익히며 그에 따른 막중한 책임감과 보람을 느끼는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정규치환 파악에 온힘을 기울이고 있고 추가처방에 휘청거리고 있지만 중환자들이 회복해가는 과정에서 생명의 소중함, 중환자 간호와 치료의 중요성을 배우고 있습니다. 매번 배워야 할 일은 산더미이지만, 능력은 못 미치고 저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하는 프리셀터 선생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득하지만 부족한 저에게 한결같은 가르침과 격려로 대해주시는 중환자실 선생님들께 한없는 감사를 전하며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42.195km를 달리기 시작한 새내기입니다. 열심히 달려갈수록 쌓여가는 간호 지식과 숙련된 임상 기술, 향상된 의사소통 기술로 저의 가진 것들을 나눠주는 시기가 빨리 오리라 희망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환자분들을 위하여는 밝고 야무진 간호사로 성장하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112병동 김서연 간호사

올해 4월부터 112병동에 근무하게 된 김서연 간호사입니다. 힘들고 긴 터널을 지나 드디어 목표한 간호사가 되어 주변사람들로부터 많은 축하를 받았습니다. 내가 일하게 될 병동은 어떤 곳일까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감에 가득 찼고, 떨리는 마음으로 병동배치를 받으며 병원 복도를 걸어가던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112병동은 일반외과를 메인으로 흉부외과, 응급외과와 환자를 돌보는 부서가 없는 병동입니다. 병동에 도착한 첫날, 저를 가르쳐 주실 프리셀터 선생님에 대한 소개를 받았고, 처음에는 어색하고 뭔가 실수해서 미안할까 걱정할 바를 몰랐으나, 먼저 다가가 주신 선생님 덕분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해주신 선생님을 볼 때마다, 그리고 제가 잘못하거나 모자란 부분이 있어도 이해와 존중으로 가르쳐 주실 때마다 어서 빨리 제 몫을 다하는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이라는 막연한 걱정과 보호자 없는 병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다 걱정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허나 그런 걱정들은 파트장님을 중심으로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서로 협력하며 의료진들 간에 상호 존중하는 모습 속에서 생사라 느낍니다. 바쁜 일로 속에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일하시는 선배님들의 모습을 보면, 이제는 막연한 두려움도 기대감과 설렘으로 다가옵니다. 환자의 곁에서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 전인간호를 실현하고 환자들, 그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제 손을 잡아 줄 때 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부드럽고 힘이 납니다.

간병 부담이 없는 전진공공의료로 실현하는 병원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걷고 있습니다.

서울의료원,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공공의료 문제전반을 조사하기 위해 출범한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의 현장검증이 지난 7월 5일(금) 서울의료원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국정조사는 지난 7월 3일(수) 보건복지부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4일 진주의료원, 5일 서울의료원과 의정부의료원 순으로 현장검증이 실시되었다.

이번 현장검증을 통해 ▲지방의료원 재정상태와 공익적 역할 ▲경영상황 등 운영실태 전반 ▲진주의료원 휴·폐업 관련사항 ▲지자체 및 지방의회 등의 지방의료원 조사 감독 평가결과 및 개선방안 등을 조사하였다. 서울의료원은 김민기 의료원장이 의원들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한 가운데 특별한 쟁점 없이 무난히 조사를 마무리하였다.

업무보고 이후에는 지난 1월부터 운영 중인 보호자 없는 '환자안심병원'을 둘러보며 운영상황을 점검했다.

김민기 의료원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서울의료원은 시설 간병인 없이 간호사들이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 없는 환자안심병원'을 운영하고, 양질의 인력 양성을 위한 의학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며 "공공의료원 경영평가가 반드시 적자를 기준으로 이뤄져선 안 되고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조사에서 공공의료기관이 가야 할 방향을 서울의료원에서 찾았다는 다수의 의견을 청취했다.

신경외과 송관영 과장 뇌혈관내수술 인증의 자격취득



신경외과 송관영 과장(교육연구부장)은 대한뇌혈관내수술학회로부터 지난 6월 27일(목) 뇌혈관내수술 인증의로 선정되었다. 학회에 따르면 올해 처음 도입된 뇌혈관내수술 인증제에서 기관별로는 전국 55개 병원이 인증을 획득하고, 개별 평가에서는 신경외과 전문의 125명이 인증을 받았다.

뇌혈관내수술 인증의 자격은 150예 이상의 진단적 뇌혈관조영술을 주수술자로 시행한 경력을 갖추고, 80예 이상의 뇌혈관내수술에서 제1조수 이상(또는 주수술자)의 경력을 갖춰야 한다. 특히 80예의 뇌혈관내수술 중에서 최소 40례는 뇌동맥류 색전술이나 두개강내외 혈관성형술 및 스텐트 삽입술, 동맥내색전용해술 및 색전제거술 등이 포함되어야 하는 등 자격조건이 까다롭다. 이번 인증을 통해 신경외과 송관영 과장은 전문적인 의료수행능력을 대외적으로 공인받았다.

서울시립대가 함께 나누는 '비타민 콘서트'

서울의료원은 서울시립대학교 연합동아리와 함께 의료원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지역주민들을 위해 '비타민 콘서트'를 지난 6월 28일(금) 4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비타민 콘서트는 서울시립대학교 동아리 학생들로 구성된 재능기부 프로그램이며, 올해 3월부터 매주 금요일 원내 1층 로비에서 의료원 이용객 및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총 14회의 문화공연을 개최해 왔다. 이번 공연은 2013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공연을 진행해 온 총 4개의 공연팀이 한 자리에 모여 재능기부를 펼쳤다.

공연은 입원환자들이 점심시간이 끝나는 오후 1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공연팀은 칸타빌레(오케스트라), 트루즈(목소리), 새벽을 알리는 소리(합창), PRISM(마술) 참여하여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을 통해 참석한 100여명이 환우 및 보호자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했다.



SBS드라마 '주군의 태양' 병원장면 촬영

8월 7일(수) 첫 방송 예정인 SBS 수목드라마 '주군의 태양'의 병원 장면 촬영을 서울의료원에서 진행하였다. 이번 드라마는 '너의 목소리가 들려' 후속작으로 지난 7월 18일(목) 저녁시간대 병원 현관 앞에서 촬영이 진행되었으며, 소지섭과 공효진이 주연을 맡아 화제를 모으고 있다. 드라마는 자신이 보고자 하는 것, 듣고자 하는 것만 취하고 살아오던 오만방자하고 자기중심적이던 한 남자의 성장 스토리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듣지 못하는 것들에 휘둘러 살아오면서 세상을 외면하고 자신을 포기했던 한 여자의 현실 적응기를 담았다. 오는 8월부터 SBS 인기드라마를 통해서 서울의료원 주요시설을 찾아볼 수 있다.



[서울특별시 소식]

올바른 의약품 사용 UCC 공모전



- 응모자격 : 올바른 의약품 사용에 관심이 많은 시민 누구나 (공동제작 시 4인 이하)
- 접수기간 : 2013. 8. 26(월) ~ 9. 9(월)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wow.seoul.go.kr (전화문의 120, 02-2133-7532)

○ 작품소재 :

- 올바른 의약품 구매
- 올바른 의약품 복용
- 의약품 부작용 대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수단
- 올바른 의약품 관리
- 가정 불용의약품 안전관리

○ 작품규격

- 시 간 : 5분 이하(컨텐츠 형식은 자유)
- 용 량 : 50MB 이하
- 해상도 : 640×480 이상
- 파일형식 : WMV, AVI, MPEG, ASF 형식의 파일 제출

※ 상기 세부규제 중 2개 이상 연계하여 제작 또는 전체규제로 통합제작

○ 입상자발표 : 2013. 9. 30(월)

○ 시상내역(총31명) :

- 대 상 1명 (수상 200만원 및 상장)
- 최우수 2명 (수상 100만원 및 상장)
- 우수상 8명 (수상 50만원 및 상장)
- 장려상 20명 (수상 20만원 및 상장)

[북부병원 소식]

‘밴드’로 소통하니, ‘情’이 넘쳐요

서울특별시 북부병원(원장 권용진)은 지난 6월부터 지인 기반 모바일 SNS인 ‘밴드(BAND)’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20일 만에 전체 직원 중 90%가 가입해 실시간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밴드는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달리 폐쇄형 SNS로, 가입이 제한돼 특정 그룹간의 커뮤니케이션에 주로 활용된다. 북부병원 밴드에는 직원들만 가입해 주로 소소한 일상이나 병원내 소식, 혹은 직접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도 올리며 실시간으로 소통한다. 특히 공공병원의 특성상 무료진료나 무료 건강강좌, 봉사활동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직접 참여하지 않는 직원들은 그 내용을 상세히 모를 때가 많지만 밴드를 통해 그러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한다. 직원들은 댓글이나 스티커를 통해 행사에 참여한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친밀감을 높이고 있다. 북부병원 밴드를 기획한 의료정보기획실의 이창용 주임은 “초기에는 카페를 통해 직원들의 소통과 참여를 기획했으나, 실시간 소통이 어려워 사실상 제대로 된 창구역할을 하기엔 무리가 따랐다”며 “3교대 직원들이 많은 병원 특성상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장구가 필요했는데 이러한 폐쇄형 SNS가 가장 적합한 도구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권용진 원장은 “조직이 발전하려면 부서간의 장벽이 허물어져야 하며, 조직원들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누구나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정서적 소통 창구가 필요했는데, 그 해답을 폐쇄형 SNS에서 찾았다”고 말했다.



[동부병원 소식]

호스피스 유가족 지지모임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원장 김정일) 완화의료 병동에서는 지난 6월 25일(화) 3층 회의실에서 ‘호스피스 유가족 지지모임’을 가졌다. 유가족이 모인 이번 행사는 지난 해보다 많은 인원이 모여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기소개를 시작으로 담화를 나누고, 심리치료의 일환으로 미술치료와 편지쓰기 시간을 가졌다. 아무것도 없었던 하얀 도화지 위에 그리움과 미래에 대한 메시지가 스며있는 그림들로 채워졌다. 이후 유족들은 자리를 옮겨 4층 정원에서 풍선 날리기 행사를 가졌으며 풍선에는 떠나간 이에게 보내는 편지를 함께 묶어 날려 보냈다. 각기 다른 이야기와 사랑하는 이를 잃고 슬픔과 상실에 빠진 유족들이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하는 자리가 되었다.”며 감사를 전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언론에 소개 된 서울의료원

- 신문
 - 국민일보(7.1) - 서울의료원, 복지부 의료기관 인증 현판
 - 의약뉴스(7.1) - 서울의료원, ‘복지부 인증 의료기관’ 현판 제막
 - 연합뉴스(7.17) - 서울의료원, 외국인 취약계층 원스톱 의료서비스
 - 포커스(7.18) - 이주민 건강 안전망... 서울의료원 지원 협약식
 - 경향신문(7.19) - 서울의료원, 이주민 건강안전망 위한 ‘보듬서비스’ 시작
 - 조선일보 행복플러스(7.23) - 서울의료원, 이주민 의료지원 협약 체결
- TV(시사 및 교양)
 - SBS 8시뉴스(7.5) - **못만 바뀌 입었을 뿐인데...‘시원 차림’ 효과 만점**
(김민기 의료원장, 재활의학과 오주선 과장 인터뷰)
 - SBS 생방송투데이(7.9) - **생활건강 프로젝트 ‘아토피 물러가라!’**
(아토피전식센터 김현정 과장 인터뷰)
 - MBC 이브닝뉴스(7.11) - **서울시립병원 13곳 공공성 강화**
 - KBS 1TV 뉴스9(7.12) - **지방의료원, ‘착한 적자’만 보전해 경영 개선**
(김민기 의료원장 인터뷰)
 - TBS교통방송 수도권프라임(7.16) - **여름철 정신건강 주의**
(정신건강의학과 심현보 과장 인터뷰)
- TV(드라마)
 - MBC 주말드라마 **스캔들**(7.14) : 방송촬영장소 지원
 - MBC 아침드라마 **잘났어, 정말!**(7.25) : 방송촬영장소 지원
 - SBS 주말드라마 **결혼의 여신**(7.20, 7.21) : 방송촬영장소 지원



[직원게시판]

“직원 가족들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교육 연수

국내 양순재(7월 7일, 가톨릭대학교) - 대한성형외과학회 코성형연구회 제11회 학술심포지엄
해외 조동희(7월 8~16일, 캐나다) - World Congress on Thyroid Cancer



함께 일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 7.1. 서낙원(고객지원팀) 윤미애(직원식당)
7.3. 민경숙, 정한나, 조윤성(병동간호팀) 김지수(외래간호팀)
7.16. 강호진(직원식당) 7.19. 김한나(치과)
7.22. 하태수, 정주희, 김난옥, 서미자, 이성엽, 유동현, 서희경, 최혜영, 조미상, 정정숙, 김선희, 김선향(간호부)



인사이동

7월 박태환(신경과) 의학연구소 연구지원실장 겸직근무 명함
허재혁(신경과) 의학연구소 연구지원실장 겸직근무 명함



결혼을 축하합니다.

김현중(교육연구부, 7월 13일)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 7.8. 신화선(병동간호팀)
7.20. 진보연(외래간호팀)
7.20. 박수정(의료정보팀)